



보다 나은 다음을 기대하며...

CDP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복음을 전합니다. Child Development Project in Mongolia

2016년 1월 ~ 6월 소식입니다.

"내 맘대로 안 된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라면 한 번쯤 했을 법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사랑과 정성 그리고 희생으로 키웠다고 해도 함부로 그의 인생을 좌우해서는 안되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보고 있자니 안타까워 어떻게 해 주고 싶지만 어차피 자녀들도 여러 넘어짐과 실수의 과정을 격어 가며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지 싶습니다.

이처럼 선교사라면 누구나 한번쯤 해 봤을 법한 말이 있습니다. 현지인(교인, 아동, 직원 등등)들에 대해 "내 맘대로 안 된다." "그렇게 많은 시간과 공을 들였는데, 변한게 하나도 없어~!" 라고 말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하고 매번 되새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지인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 우리가 아무리 사랑과 기도와 희생으로 섬겼다고 해도 함부로 그의 인생을 좌우하려고 해선 안되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것. 또한 그들도 그들만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사고의 방식과 삶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들의 것을 존중해야 합니다. 자칫 내 것이 기준이 되어서 내 것과 다른 것은 달라져야 하는 것으로 치부해 버리는 실수를 멈춰야 합니다. 이런 실수를 저도 해 왔었고, 주위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2~3년 전부터 달라진 마음가짐으로 이들과 함께 해 오면서 많은 변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제가 달라진 것이지요. 그리고 현지인 직원들도 저 처럼 좀 부족하지만 이 일에 책임감과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 교제의 시간

상담시간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실제로는 아이들에게 놀이 공간을 제공 하고 아이들과 어울려 노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이로 만나는 것이 상담이라는 다소 경직된 만남을 갖는 것보다 아이들을 이해하고 아이들과 관계를 맺는데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만나면 즐겁고, 재미있어야 또 만나고 싶고, 마음이 가까워지고 그런 것이지요. ^^



● 졸업여행

길게는 12년간 CDP에서 도움을 받았던 아동이 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CDP에서도 떠나게 되는데 비록 CDP에서는 떠났지만 있었던 시간을 소중한 기억으로 갖게 하기 위해 졸업여행의 시간을 갖었고 졸업사진도 찍어서 졸업앨범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 CDP-Day

이번 CDP-Day는 3년 마다 몽골 CDP아동 전체가 모이는 CDP-Day로 치러졌습니다. 게다가 몽골 CDP 가 20주년을 맞이하는 해여서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공연을 보면서 CDP-Day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쉽게 알 수 있더군요. 저 아이가 대장이고 다른 아이들은 그 아이에게 혼나면서 배웠을 모습이 상상이 되니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더 귀여워 보였고, 입가에 웃음을 머금게 했습니다. 어떤 아동들은 마이크도 없지만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던 들리지 않던 자리를 지키며 열심히 노래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 그렇지... 누구에게 어떻게 보여주며 박수를 받는 것 보다고 자신 스스로가 나중에 내가 그런 무대에서 노래를 불렀다는 것이 아이들에게 추억으로 남고 두고두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기억이 되지 싶습니다.



공연을 한 아동에게 메달을 수여하고, 10년 근속직원을 격려했습니다.

● 눈썰매, 스키체험, 체육대회, 부모체육대회,



위 : 눈썰매 / 아래 : 졸업생 스키체험



위 : 고학년 체육대회 / 아래 : 부모체육대회

- 추운 겨울이지만 즐거운 놀이 앞에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리 재미있어도 2시간 이상 탈 수는 없습니다. 잠시 몸을 녹인 다고 쉬면 다시 나가기 어렵지요. ^^
- 매년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스키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 많은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닌데, 할 수 있음에도 스스로를 작게 여겨 엄두를 못내고 포기 할 수 있기에 이렇게 한 번 경험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강습을 받았지만 한 번에 되지는 않습니다.
- 부모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젠 제법 참여하는 숫자도 많아졌습니다

● 각종 지원프로그램



위 : 생필품 지원 / 가운데 : 비타민지원 / 아래 : 케르지원



● 어린이날 축하 및 생일파티



- 가끔은 부모가 생일파티에 참가해서 이 기회를 겸해서 자신의 아이 생일을 축하해 줍니다.

● 저학년 소풍



* 좀 추웠지만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간다는 것만으로도 가슴 설레게 하는 것이 소풍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화도 보고, 공원에도 가고 그랬습니다.

* 매 년 그랬듯이 자원봉사자들을 초대해서 우리 사역을 소개하고, 올 해의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학교 선생님 체육대회



늘 지도하고, 가르치던 자리에서 벗어나 맘껏 에너지를 발산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
선생님들의 승부욕... 짱 ~~!!!

● 청소년 세미나 / 방과후 수업



* 몽골의 학생들은 1학년 때 같은 반이면 12학년(고등학교) 졸업 때 까지 같은 반으로 공부를 합니다. 이것이 친밀감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사قم의 폭이 좁고 다양한 사회성을 배움에는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사قم을 주제로 세미나를 했는데, 아주 좋아했는데 아쉬움이 있어서 이번에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 가족이야기

이제 둘째 영훈이도 러시아에서 대학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아내와 둘만 남아서 이젠 둘이 사는 법을 배워가는 중에 있으며, 또한 20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이 부모를 배워가는 중입니다.

얼마 전 기아대책에서 파송된 선교사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하는 역량강화 훈련에 참석차 한국을 방문 했었습니다. 본부의 바뀐 규정을 익히고, 본부에서 근무하는 간사님들과 친숙함을 갖게 되었고, 각국에 나가있는 선교사님들과 교제하면서 각 국에서 기아대책을 통한 선교 사역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교육 일정이 빽빽해 집에 돌아오면 잠자고 아침에 나가기를 반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처 연락드리지 못한 분들께 죄송한 마음을 전하며,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나은 다음을 기대하며..."

몽골에서 김준태, 천선희(영찬, 영훈) 선교사 올림.
 연락처 : 몽골 976-9944-8115 , 976-9947-8115
 070-4642-8117
 peter66@hanmail.net
 후원 계좌 : 660401-01-179920 국민은행 김 준 태